<h1>나 혼자만 레벨업-22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o366be738e3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22화</p>  
<p>마침 목이 말랐던 진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보온병 뚜껑을 받았다.</p>  
<p>벌컥벌컥.</p>  
<p>목을 타고 시원하게 넘어갔다.</p>  
<p>"형님, 어떠십니까?"</p>  
<p>그러고 보니 호칭도 어느새 '형님'으로 바뀌어 있었다.</p>  
<p>"음- 시원하네."</p>  
<p>진우는 소감을 말하며 뚜껑을 건넸다.</p>  
<p>"그리고 너 여기서 본 건."</p>  
<p>진우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유진호가 먼저 걱정하지 말라는 투로 딱 잘라 말했다.</p>  
<p>"그럼요! 절대 말 안 하고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."</p>  
<p>"아니, 딱히 무덤까지는."</p>  
<p>"그럴 수가 있나요. 형님과의 약속인데."</p>  
<p>"뭐... 알겠다. 그러겠다면야."</p>  
<p>"염려 마십시오, 형님."</p>  
<p>어차피 E급 헌터가 C급 게이트의 보스를 잡았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없겠지만 말이다.</p>  
<p>그래도 알아서 입을 다물겠다고 하니 편하긴 했다.</p>  
<p>'눈치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건 또 알아서 척척이네.'</p>  
<p>"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, 형님?"</p>  
<p>"...없어."</p>  
<p>아무래도 이상한데.</p>  
<p>진우는 지나치게 깍듯한 유진호의 태도를 보면서 의아해하다가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해 냈다.</p>  
<p>'하긴 유진호 입장에선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까.'</p>  
<p>목숨을 구해 준 사람에게 공손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닌가.</p>  
<p>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갔다.</p>  
<p>실상은 조금 달랐지만 말이다.</p>  
<p>쿠구궁-</p>  
<p>던전이 또다시 조금 흔들리다 멈췄다.</p>  
<p>이 진동은 잠시 뒤에 게이트가 닫힌다는 신호다.</p>  
<p>흔들림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다가 게이트가 닫히기 일보 직전에는 거의 지진처럼 변한다.</p>  
<p>"나가자."</p>  
<p>"예, 형님."</p>  
<p>진우는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그런데 그때 입구 쪽에서 빛이 번쩍이며 돌무더기가 무너졌다.</p>  
<p>퍼어엉-</p>  
<p>황동석과 일행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.</p>  
<p>그들은 진우 뒤에 쓰러져 있는 거미를 보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"뭐야, 진짜 죽었네?"</p>  
<p>"둘이서 저걸 죽인 거?"</p>  
<p>"저 거미 새끼 덩치만 크지 별거 아니었나?'</p>  
<p>"D급 E급 둘이서 잡았으면 말 다했지."</p>  
<p>"황 형, 이제 어쩌죠?"</p>  
<p>황동석은 진우와 유진호를 보며 턱을 긁적거렸다.</p>  
<p>거미가 죽었으니 게이트는 곧 닫힌다.</p>  
<p>지금부터 마나석을 캐기엔 늦은 감이 있었다.</p>  
<p>준비도 제대로 다 안 끝났는데, 남은 건 이제 1시간이 채 안 될 테니.</p>  
<p>계획을 바꿔야 할 때였다.</p>  
<p>그래서 큰 소리로 유진호를 불렀다.</p>  
<p>"유진호!"</p>  
<p>유진호가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.</p>  
<p>그런 그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다.</p>  
<p>황동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"네 장비가 좀 튀어서 검색해 봤더니 아주 대단한 사람 아들이드만? 유진건설 회장 유명한."</p>  
<p>"그, 그래서?"</p>  
<p>"너는 우리가 기회를 줄게. 네 아버지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. 그런데 여기서 있었던 일이 새어 나가면 우리 입장이 좀 곤란해지거든. 그러니 살고 싶으면 너도 공범이 되어라."</p>  
<p>"공범?"</p>  
<p>황동석이 턱으로 진우를 가리켰다.</p>  
<p>그 불쾌한 시선에 진우의 미간이 일순간 꿈틀거렸다.</p>  
<p>"성진우를 죽여."</p>  
<p>"뭐?"</p>  
<p>유진호가 경악했다.</p>  
<p>황동석이 그 표정을 보고 재밌다는 듯 웃었다.</p>  
<p>원래는 유진호도 성진우와 같이 죽일 생각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밖에서 폰으로 검색해 봤더니 유진호의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건설 회사 오너였다.</p>  
<p>그걸 보고 나자 한 가지 묘안이 머릿속에 떠올랐다.</p>  
<p>유진호가 성진우를 죽이는 장면을 촬영하고, 그걸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유명한에게 돈을 요구하면?</p>  
<p>'유명한의 재산이 알려진 것만 10조라지.'</p>  
<p>어쩌면 마나석을 캐서 얻었을 돈의 몇 배를 건질 수 있을지도 몰랐다.</p>  
<p>"네가 살 방법은 그것뿐이다. 네 손으로 직접 성진우를 죽이면 너는 살려 준다. 그게 아니면 너희 둘 다 우리 손에 죽는다."</p>  
<p>황동석의 눈빛이 살벌해졌다.</p>  
<p>"뭘 망설여? 어차피 던전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. 설마 D급이 E급 따위한테 쪼는 거냐?"</p>  
<p>유진호는 옆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진우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.</p>  
<p>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이었다.</p>  
<p>유진호는 비장한 얼굴로 옆구리에 찬 칼을 뽑았다.</p>  
<p>'드디어 결심이 섰나 보군.'</p>  
<p>황동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 갔다.</p>  
<p>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.</p>  
<p>유진호는 검을 들고서 진우 옆에 나란히 섰다.</p>  
<p>"호오, 그쪽이랑 편 먹고 우리하고 싸우시겠다고?"</p>  
<p>황동석은 속으로 중얼거렸다.</p>  
<p>부잣집 도련님이 운 좋게 C급 보스를 한번 잡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.</p>  
<p>옆에서 조규환이 속삭였다.</p>  
<p>"형, 어쩔까요?"</p>  
<p>황동석은 진우와 유진호가 듣지 못하도록 나직이 말했다.</p>  
<p>"일단 성진우부터 처리해. 돈줄은 좀 쥐고 있자. 오늘 손해가 막심하니까."</p>  
<p>"그러죠, 뭐."</p>  
<p>조규환의 양손에 눈부신 빛이 생겨났다.</p>  
<p>진우는 눈매가 가늘어졌다.</p>  
<p>'결국 해보자는 거네.'</p>  
<p>헌터와 싸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몇 번이나 목숨을 노려 오는 상대를 봐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다.</p>  
<p>그런데, 그때!</p>  
<p>띠링.</p>  
<p>기계음이 울렸다.</p>  
<p>[긴급 퀘스트가 발생했습니다.]</p>  
<p>'긴급 퀘스트?'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내용을 본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눈앞에 퀘스트 창이 펼쳐졌다.</p>  
<p>처음 있는 일이었다.</p>  
<p>[긴급 퀘스트: 적들을 처치하라!]</p>  
<p>'플레이어'에게 살의를 가진 이들이 주위에 있습니다. 이들을 모두 처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십시오.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.</p>  
<p>처치해야 할 적의 숫자: 8명</p>  
<p>처치한 적의 숫자: 0명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퀘스트 완료 조건이 황동석 일행 전원의 죽음이라고?'</p>  
<p>갑자기 눈앞에 빛이 번쩍였다.</p>  
<p>조규환의 손을 떠난 빛의 화살이 진우에게 작렬한 것이다.</p>  
<p>퍼어엉-</p>  
<p>폭발에 떠밀린 진우는 엄청난 속도로 벽에 처박혔다.</p>  
<p>쾅!</p>  
<p>벽 일부가 무너지며 진우 위를 덮쳤다.</p>  
<p>우르르.</p>  
<p>"형님!"</p>  
<p>유진호가 황급히 진우에게 달려가려고 했으나, 그전에 황동석이 먼저 유진호를 불러 세웠다.</p>  
<p>"유진호!"</p>  
<p>유진호가 깜짝 놀라며 멈춰 섰다.</p>  
<p>"이미 죽은 놈은 신경 쓰지 말고 이리 오시지."</p>  
<p>황동석이 손끝을 까닥거렸다.</p>  
<p>유진호는 진우가 있는 곳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황동석의 말처럼 진우는 돌들에 파묻힌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.</p>  
<p>"이... 이, 살인자들..."</p>  
<p>유진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갔다.</p>  
<p>황동석과 동생들은 살인자라는 원색적인 비난에도 히죽히죽 웃음을 보였다.</p>  
<p>그게 사실이니까.</p>  
<p>지금까지 던전에서 자신들 손에 죽어 간 목숨만 몇인지.</p>  
<p>그들이 유진호를 보며 웃고 있을 때, 진우는 돌 더미에 눌려 눈을 의심하고 있었다.</p>  
<p>틈 사이로 보이는 퀘스트의 내용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.</p>  
<p>[긴급 퀘스트: 적들을 처치하라!]</p>  
<p>'&amp;\*@##'에게 살의를 가진 이들이 주위에 있습니다. 이들을 모두 처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십시오.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#$% ^%@$ #$%#^!&amp;\*#$%^$.</p>  
<p>처치해야 할 적의 숫자: 8명</p>  
<p>처치한 적의 숫자: 0명</p>  
<p>몇 개의 단어가 깨지더니 스르륵 형태를 바꾸었다.</p>  
<p>[긴급 퀘스트: 적들을 처치하라!]</p>  
<p>당신에게 살의를 가진 이들이 주위에 있습니다. 이들을 모두 처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십시오.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심장은 정지하게 됩니다.</p>  
<p>처치해야 할 적의 숫자: 8명</p>  
<p>처치한 적의 숫자: 0명</p>  
<p>명백한 협박이었다.</p>  
<p>퀘스트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.</p>  
<p>'죽기 싫으면 죽여라?'</p>  
<p>경악할 만한 내용이었지만 진우의 당혹감은 오래가지 않았다.</p>  
<p>당혹감은 빠르게 안도감으로 변해갔다.</p>  
<p>스스로도 믿기 힘들었지만 사실이었다.</p>  
<p>퀘스트가 날아오고 능력치가 보이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걱정.</p>  
<p>-이 기현상이 갑자기 끝나 버리면 어쩌지?</p>  
<p>이 모든 게 만약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?</p>  
<p>그런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다.</p>  
<p>하지만 이번 긴급 퀘스트로 명백해졌다.</p>  
<p>이것은 우연도, 호의도 아니다.</p>  
<p>호의로 발생한 퀘스트였다면 위기를 모면하라고만 하지, 페널티로 목숨을 빼앗아 가겠다고는 하지 않았을 터였다.</p>  
<p>시스템에는 목적이 있는 거다.</p>  
<p>'성진우를 강하게 만들겠다'가 아니라 '강한 성진우가 필요하다'는 목적이.</p>  
<p>'상황에 따라선 같은 헌터들조차도 가차 없이 죽일 수 있는...'</p>  
<p>그러한 의도가 퀘스트 속에서 엿보였다.</p>  
<p>진우는 다시금 안도했다.</p>  
<p>'다행이다.'</p>  
<p>우연이 아니어서.</p>  
<p>의도가 분명해서.</p>  
<p>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강해지고 싶었다.</p>  
<p>낭떠러지 끝에 간신히 매달린 것 같은 아슬아슬한 삶을 늘 벗어나고 싶었다.</p>  
<p>그런데 그날,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 기회가 찾아왔다.</p>  
<p>시스템의 목적은 진우의 바람과 정확히 일치했다.</p>  
<p>'시스템은 나를 이용하고, 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.'</p>  
<p>그러면 되는 거다.</p>  
<p>목적이 존재하는 한 이 기현상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.</p>  
<p>진우가 돌무더기 속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[체력: 1360 / 2600]</p>  
<p>역시 C급 헌터의 마법이었다.</p>  
<p>한 방을 맞았을 뿐인데 체력이 반이나 줄어 있었다.</p>  
<p>이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여력은 없었다.</p>  
<p>진우의 눈빛에 독기가 서렸다.</p>  
<p>진우는 황동석을 향해 걸음을 뗐다.</p>  
<p>"어라?"</p>  
<p>겁에 질린 유진호를 둘러싸던 황동석 일행도 뒤늦게 다가오는 진우를 발견했다.</p>  
<p>"뭐야, 쟤 살았네?"</p>  
<p>"규환이 형도 많이 죽었는데?"</p>  
<p>"무슨 망신이야, E급한테."</p>  
<p>황동석이 또다시 턱을 긁적거렸다.</p>  
<p>"규환아, 제대로 좀 하지 그랬냐?"</p>  
<p>조규환의 얼굴이 벌게졌다.</p>  
<p>"그... 그러게요."</p>  
<p>아닌데.</p>  
<p>분명 전력을 다한 마법이었는데.</p>  
<p>마력을 1/3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일어난 거지? 혹시 빗맞았나? 아냐, 빗맞았다면 소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잖아?</p>  
<p>많은 의문이 떠올랐지만 물어볼 틈은 없었다.</p>  
<p>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.</p>  
<p>"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쳤으니."</p>  
<p>황동석 일행의 시선이 진우에게 고정되었다.</p>  
<p>진우는 황동석 일행 앞에 걸음을 멈췄다.</p>  
<p>유진호는 흠칫 놀랐으나, 다른 헌터들의 반응은 미미했다.</p>  
<p>몇몇은 표정에 조소를 보이기도 했다.</p>  
<p>진우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.</p>  
<p>"그만한 각오는 되어 있겠지?"</p>  
<p>그 말에 황동석이 허- 하며 코웃음 쳤다.</p>  
<p>"이 자식이 지금 뭐래는 거야?"</p>  
<p>"형님, 제가 처리할게요."</p>  
<p>뱁새눈 헌터 하나가 다가와 진우의 목에 팔을 척 걸쳤다.</p>  
<p>"형씨가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."</p>  
<p>팔에 힘을 주던 뱁새눈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다.</p>  
<p>'...뭐지? 왜 안 꺾이는 거냐?'</p>  
<p>완력으로 헤드락을 걸려고 했지만 암만 힘을 줘도 진우의 상체가 꺾이지 않았다.</p>  
<p>이 자식, E급이라고 하지 않았나?</p>  
<p>뱁새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갔다.</p>  
<p>'무슨 힘이 이렇게...'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스걱.</p>  
<p>뱁새눈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.</p>  
<p>툭.</p>  
<p>"주, 준태야!"</p>  
<p>황동석의 동공에 지진이 일었다.</p>  
<p>"뭐, 뭐야?</p>  
<p>"저 새끼 언제 칼을!"</p>  
<p>"어디서 난 거야!"</p>  
<p>황동석 일당은 급히 무기를 꺼내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. 진우의 손에는 어느새 소환된 '카사카의 독니'가 들려 있었다.</p>  
<p>단검 끝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처치해야 할 적의 숫자: 7명]</p>  
<p>[처치한 적의 숫자: 1명]</p>  
<p>'일곱 남았다.'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